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고전 1:18-25)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18-25)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의 일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진영이 생기면서 교회는 나누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분열의 원인과 그 문제 해결 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 교회 분열의 원인과 대안

먼저 고린도교회 분열의 원인은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 데 있었다. 특별히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내세우면서부터였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 자신들의 영적 지위와 자신이 속하는 진영이 달라진다고 여긴 것이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세례를 준 교회 지도자에 더 주목하였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기 시작한 고린도교회는 단순한 분열을 넘어 세속화의 길로 나아갔다.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되니 그들이 믿는 복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그들이 선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말과 지혜가 중심이 되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십자가는 없어지고 온통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설명만 가득하게 되었다.

특히 고린도교회의 세속화는 고린도라는 지역적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당시 고린도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넘쳐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고린도교회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가 아닌 세상의 복잡한 철학과 사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에 쓴 그의 편지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다. 그는 고린도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 분열되었고, 사람들의 말의 지혜를 따라 복음을 이해하려는 말쑥의 세속화, 신학의 세속화가 고린도교회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한다. 바울의 이러한 지적을 가장 잘 요약한 본문이 17절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17).

바울의 이 말은 그의 신학을 잘 정리하여 보여준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의 말의 지혜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다.

###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로고스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말의 지혜’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말의 지혜이고 회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전 1:18).

헬라이어 성경에는 18절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17절과 연결시킨다. “우리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세상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말한다.

17절의 ‘말의 지혜’가 사람 중심 복음이라면, 18절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중심의 복음 이해를 말한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은 한글성경에서는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라고 다르게 번역하였으나 헬라이어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모두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로고스의 지혜’, ‘십자가의 로고스’다.

바울은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설명해야 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 자체가 말을 한다고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면 그 십자가의 로고스가, 십자가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신학적 세속화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고린도교회는 복음을 사람의 지혜의 말로 이해하려 하면서 세속화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가 스스로 선포하는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사람의 말의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십자가와 말의 지혜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헬라이어 ‘소피아’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자연과 현상을 이해하려는 철학 체계를 말한다.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이 진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는 복음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 바라본 십자가는 실패이고 절망이다. 어떤 능력도 소망도 없이 실패한 자가 남긴 죽음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내린 형벌인 십자가에 신이 놓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재창조의 과정이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회복의 방법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전 1:19-20).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고 이 시대의 지혜자들을 모두 미련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다.

19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지혜를 폐하시고 총명을 멸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사 29:13-14).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총명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게 하는 최악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린도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사람의 지혜의 말을 더 따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다고 한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깨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어떤 것도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며 어떤 길도 분명하지 않고 복잡하기만 할 뿐이다.

###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선포되는 복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새로운 세상과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은 십자가의 로고스, 곧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된 구절은 ‘우리가 선포하는 어리석음’이다. 이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듣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구원을 전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다.

먼저 유대인에게 십자가가 어리석게 들리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

율법이 없는 헬라인은 그들의 철학과 경험을 통한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길 원했다. 그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내린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생각이었다. 그들에게 신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탐욕스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폐하신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이다. 비웃거나 도망가거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고전 1:22-23).

세상 속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진리다. 그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큰 지혜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바울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로고스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25).

이 표현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약하시지도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작은 어리석음과 약함도 인간의 가장 큰 지혜와 강함보다 크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혜로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롭다는 것이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고린도교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사람의 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세속화,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해야 하며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토대로 복음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 **맺음말**

복음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 진리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믿어야 한다. 그때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